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자료</b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8. 26.(목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국토부 첨단자동차과	담당자	• 과장 박문수, 사무관 조익희 • ☎ (044) 201-3847, 3934	
	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	담당자	• 팀장 김준동, 사무관 황선영 • ☎ (044) 202-6150, 6152	
보도일시		2021년 8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6.(목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교통부-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맞손,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전국 구축 시동

- LTE-V2X 조기 실증 · 고속도로 병행구축 시범사업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, 이하 국토부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과기정통부)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,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-ITS 공동작업반\*을 구성하여 C-ITS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\* 국토부, 과기정통부, 전자기술연구원, 도로공사, ITSK, TTA으로 구성

- 첫 단추로 8월 26일, 양 부처는 C-ITS 공동작업반 킷오프 회의\*를 개최하고, LTE-V2X방식의 실증계획,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\* (時/所) '21. 8. 26(목) 14:00 / 세종청사 2동 국회회의장 소회의실

- C-ITS는 차량과 차량, 차량과 도로 간 통신으로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 센서거리(150~200m)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,
-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-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.

□ 그동안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C-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\*에 대해 기술성숙도,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,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.

\*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-V2X 기술 존재

○ 세부적으로는 LTE-V2X 방식을 조기에 실증(~'22)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(WAVE+LTE-V2X) 시범사업(~'23)을 거쳐 '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.

- 특히, 고속도로 시범사업은 국제 동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과 자율차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병행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하되, WAVE 방식은 올해 4분기부터 구축에 착수하고 LTE-V2X 방식은 실증 종료('22년말 예상) 즉시 구축에 착수한다.

- 이후 실증 및 시범사업 결과, 국제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단일 통신방식으로 전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“자율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C-ITS 인프라를 전국에 조속히 구축하여,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면서,

○ “C-ITS 공동작업반을 중심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C-ITS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은 “그동안 양 부처는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왔고 오늘에 이르렀다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앞으로도 자율주행 및 차량통신 생태계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조익희 사무관(☎ 044-201-3934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 정책팀 황선영 사무관(☎ 044-202-61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